

연암의 기행문에 나타난 산문정신의 변이*

김수중**

|| 차례 ||

1. 서론
2. 연암의 여행 내력
 - 1) 금강산 유람
 - 2) 연경과 열하 여행
 - 3) 해인사 유람
3. 연암의 산문정신과 기행문의 형태
 - 1) 산문정신의 기준
 - 2) 연암 기행문의 변형 양상
 - 3) 운문의 사용과 산문정신 변이의 문제
4. 결론

【국문초록】

연암 박지원의 산문정신은 단순히 그가 운문 사용을 기피했던 태도의 차원에서 논의될 일이 아니다. 그는 글쓰기의 대상이 되는 사물을 어떻게 하면 가장 진실하게 묘사할 것인가를 궁리하고 모색한 결과, 사실적 표현에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 산문을 문학의 수단으로 삼았다. 연암은 이를 자신의 글쓰기 정신으로 삼아 산문 위주의 문학적 태도를 확립한다. 그러나 이 정신은 유독 그의 기행문에서 변이 양상을 보여 주고 있어 문제를 낳고 있다.

그는 인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여행을 하고 그 결과를 글로 남겼다. 청년 시절, 연암은 자신을 괴롭히던 우울증과 과거 응시 여부의 갈등을 안고 금강산 유람에 나섰다. 여정 전체의 기록은 없지만 이때 창작한 <총석정관일출>이라는 해돋이 감상 글이 남아

* 이 논문은 2008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조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있다. 그는 거기에 새로운 세계를 기대하는 소망을 담았는데, 이 꿈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장편 한시를 사용하였다.

연암의 본격적인 기행문은 『열하일기』이다. 그는 이 방대한 저작을 통해 청나라의 문물을 조선인들에게 알리고 그것을 실천하기를 열망했다. 당연히 세세한 부분까지 사실적 묘사를 하는 산문 양식의 글이었다. 그렇지만 『열하일기』에는 약 200편에 가까운 삽입시가 나온다. 중국에서 본 일을 기록하면서 그것을 확인시키기 위해 한시를 인용하는 ‘산문-운문-산문’의 결합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그는 한문으로 된 기행문이 갖는 전통적 산문 형식을 이탈하면서까지 곳곳에 운문을 활용했다.

만년에는 자신의 임지에 가까운 해인사를 다시 찾아보고 유람시 <해인사>를 내놓았다. 그는 여기에서 초기의 한시로 환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사실적 묘사 방식에 충실한 시를 썼다. 연암은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사물에 대한 묘사나 대상의 인식 효과가 운문 양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을 경우 산문정신의 변이도 개의치 않았던 것인가 하는 의문의 여지를 남겨놓았다.

여기서 연암이 설정한 산문정신의 기준을 파악해야 하는 문제가 나온다. 산문은 글이 갖는 형식의 제약을 벗어나 대상을 자유롭게 표현하려는 태도에서 비롯된 산물이며, 산문정신은 이런 입장을 바탕으로 인간의 의식 속에 발현되는 여러 생각들을 아무런 구속 없이 표현하고자 하는 문학적 사고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독자를 대상에 더 가까이 이끌 수 있는 방식이 있다면 그것을 자유롭게 활용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기행문에서 시가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면 산문적 규범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연암의 정신적 기준이었다.

연암의 산문정신은 기행문에서 유연성을 발휘하며 운문을 포괄하는 자유로운 표현 의식을 지칭하는 의미로 변이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사실적 전달을 위한 운문의 사용이 산문정신을 유지 강조하는 수단으로 쓰인 것이다. 결국 연암이 기행문에서 사용한 시들은 역설적으로 작가의 산문정신을 강화시켜주는 변이 작용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주제어 : 산문정신, 기행문, 총석정관일출, 열하일기, 해인사, 사실적 묘사, 표현 의식

1. 서론

燕巖 朴趾源(1737~1805)의 문학과 인생에 관한 논의에서 기행문의 창작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삶의 고비마다 여행을 통하여 새로운 힘을 얻고 결단을 내렸던 연암이었기에 그의 기행문 속에는 세상을 대하는 정신이 녹아 있다. 이 글에서는 연암이 남긴 세 편의 대표적 기행문을 대상으로 삼아 표현의 변형 양상과 산문정신의 변이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산문을 표현 수단으로 삼았던 연암이 기행문에 유독 운문체를 즐겨 사용한 까닭은 무엇이며, 이에 따라 작가 자신이 추구한 산문정신에 어떤 변화가 찾아오게 되었는지를 밝히는 데 목표를 두었다.

연암의 일생에 있어 가장 거대한 분수령은 『熱河日記』 집필이라는 문학 적 사건이었다. 그가 과거 시험을 포기한 후 실학사상을 확립하기 위해 각 고를 거둬하던 시기에 있었던 연경과 열하의 여행길은 인생 최대의 감동과 함께 스스로의 문학정신을 가다듬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 방대한 분량의 기행문은 저자인 연암을 최고의 작가 자리에 올려놓았고 당시 조선 사회의 문풍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열하일기』는 연암이 중국 여행 중에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자신의 견문을 기록한 산문 양식의 글이다. 이와 같은 산문은 근본적으로 비문학 적 기록이 될 소지를 안고 있다. 그러나 연암은 그런 본질적인 문제를 극복 하고 기행문 형식의 산문 속에 풍성한 문학성과 사상성을 아울러 담아냈다. 이 대형 기행문은 일찍이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운 찬사와 꺾박을 아울러 받으며 한국문학사에 굵은 획을 긋게 되었다.

여기서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문제는 기행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연암의 산문정신이다. 연암은 운율에 철저히 구속당하는 운문 형식을 벗어나 표현의 제약이 없는 산문으로써 문학의 세상을 열어가려 했다. 근대사회의 여명과 더불어 연암의 선각자적 의식이 새 문학 운동의 빛으로 작용

하기 위해서는 신문이라는 방식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에 연암은 자신의 창작 활동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투철한 산문정신으로 무장한다. 그러나 이 정신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충실히 그리기 위한 것이었지 운문을 비롯한 기존 문학양식을 배격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었다. 그런 점에서 연암의 산문정신은 기본을 흔들지 않는 범위에서 유연한 변이를 가져온다.

특히 이 정신이 기행문을 통해 달라지는 모습을 보인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연암은 『열하일기』를 쓰기 이전에 금강산을 유람하고 나서 <叢石亭觀日出>이라는 장편 한시를 창작했다. 좀처럼 시를 쓰지 않던 연암이 조선 최고의 명산을 여행한 후 그 결과를 시로 남겼다는 것은 대단히 특이한 사건이다. 그가 남긴 시편의 숫자는 지극히 적어 불과 45편을 헤아릴 뿐인데 그것도 대부분 짧은 소품에 불과하다. 본격적인 장시가 다시 나온 것은 연암이 50대에 안의 현감으로 있을 적 가야산 해인사를 유람하고 난 뒤의 일이다. <海印寺>라는 시는 연암 만년의 대표적인 기행시로 꼽힌다. 그렇다면 연암은 여행의 시작과 끝 부분을 시로 장식했고, 여행의 최고봉인 산문집 『열하일기』에도 수많은 인용시들을 실었다. 이 사실들이 갖고 있는 문학적 의미는 무엇인지 연암의 여행 내력과 기행문의 형태, 그리고 문학정신의 변이를 따라가 보기로 한다.

2. 연암의 여행 내력

1) 금강산 유람

연암의 젊은 시절, 삶에 생기를 불어넣은 중요한 사건으로 금강산 유람을 꼽을 수 있다. 서울의 서부 지역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성장한 연암에게 있어 서울은 답답하고 소란한 세상에 불과했다. 20여 세 무렵에 여러 편의

전을 지어 세태를 풍자했고, 남들을 따라 과거 공부도 했지만 그에게 찾아온 것은 복잡한 세상살이에서 비롯된 불면증이나 우울증 같은 고통이었다. 따라서 연암은 과거 시험에 나가서도 시권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합격 여부에 전혀 관심을 쏟지 않았다. 그러던 그가 벗들로부터 금강산 여행을 권유받자 적극 참여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연암의 나이 29세 되던 1765년 가을에 이미 과거에 급제한 兪彦鎬와 申光蘊이 금강산을 유람하기 위해 출발하면서 함께 가기를 권했다. 연암은 부친의 허락을 얻고 또 다른 다정한 벗 金履中에게서 금전적 도움을 받아 여행에 나선다. 이 일은 집에 앉아 글을 쓰며 인생의 외로움을 견디던 그에게 변화의 계기를 마련해 준 사건이 되었다. 그는 금강산의 만폭동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기도 하고, 삼일포와 사선정에서는 글을 지어 현판에 새기는 등 여행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린다.¹⁾ 그리고 총석정에서 지은 日出詩 <총석정관일출>을 남겼다. 이는 70구 490자로 이루어진 장편 고시로서 금강산 기행의 백미를 장식하는 연암의 걸작이었다. 답답한 제도에 갇혔던 마음의 율화를 견어내고 신천지의 도래를 염원하는 마음을 그 속에 담았다.

자신궁엔 조희 전에 막 갓옷을 모셔놓고
 병풍만 펼쳐 논 채 용상은 비어 있네
 초승달은 셋별 앞에 오히려 밀려나서
 먼저 예를 행하려고 등설처럼 제법 맞서네
 붉은 기운 차츰 묶어 오색으로 나뉘더니
 먼 물결 머리부터 질로 먼저 맑아지네
 바다 위 온갖 괴물 어디론지 숨어 버리고

1) 遍踏表裏諸勝 題名於萬瀑洞中而歸 三日浦四仙亭 又有聯句懸板. 朴宗采, 『過庭錄』 卷一.

현판에 새긴 글이나 구체적 여정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회화만이 홀로 남아 수레 장차 타려 하네
 옥만 사천 년이나 둥글둥글 내려왔으니
 오늘 아침엔 동그라미 고쳐 어찌면 네모 될라
 紫宸未朝方委裘
 陳屐設黼仍虛凭
 織月猶賓太白前
 頗能爭長薛與滕
 赤氣漸淡方五色
 遠處波頭先自澄
 海上百怪皆遁藏
 獨留羲和將驂乘
 圓來六萬四千年
 今朝改規或四楞²⁾

해돋이를 기다리던 길손들의 심정은 여명 직전에 술렁이는 바다의 혼돈에 밀려 잠시 흔들리다가 태양의 출현과 함께 온전히 회복된다. 위의 인용 부분은 지금 막 떠오른 해를 천자로 비유하고, 그것을 뛰어난 사각형 모양의 태양 모습을 상상하기에 이르는 구절이다. 원형의 태양으로 상징되는 전통적 천자가 아니라 세상이 바뀌어지는 파천황의 상상력을 발휘한 것이다. 이를 가리켜 ‘당시 사회의 어둠과 혼돈을 씻어줄 제2의 천지창조의 소망’³⁾ ‘사각형의 태양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새로운 사상의 기본 이념과 방향의 골격은 그의 실학정신이나 평등사상’⁴⁾이라는 분석이 나와 있다.

2) 朴趾源, 『燕巖集』, 卷之四 映帶亭雜咏 <叢石亭觀日出>.

이 글에서 인용한 『연암집』 내용의 번역은 신호열·김명호 역본(돌베개, 2007)을 사용하였음.

3) 송재소, 『연암의 시에 대하여』, 『연암연구』, 계명대학교출판부, 1984, p.234.

4) 박노준, 『<충석정관일출>과 <해>의 지향세계』, 『조선후기 시가의 현실인식』,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998, pp.14~15.

연암은 금강산 기행을 통하여 이렇듯 기발한 생각을 쏟아놓았다. 자신이 갇혀 지내는 원형의 세계를 마치 네모난 세상으로 변화시키고자 기대하는 개혁의 의도를 담은 표현이란 점이 눈길을 끈다. 그러나 ‘或四楞’에 보이는 연암의 비의는 결국 불가능을 예고한 징표가 된다. 개혁을 향한 그의 열정과 의지가 비록 거대한 의미를 띠다고 하더라도 사각형의 태양 출현에 대해서는 회의를 느끼고 있다는 까닭에서다.⁵⁾ 아직 자신의 미래지향적 꿈이 요원하기만한 현실 속에서 연암은 지금 막 고통의 시절을 벗어나려 하고 있을 뿐이다. 여기에서 그는 지식인의 고뇌와 변화의 갈망을 시적 비유로 나타내고 있다.

금강산 여행 후, 또는 이 작품을 내놓은 후 연암의 삶에는 상당한 변화가 찾아온다. 우선 자신의 글, 특히 장시에 관한 평판이 높아져 다양한 문장을 세상에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판서 洪象漢이 이 시를 읽고 세상에 없는 필력이라고 찬사를 보내며 정중히 붓 이백 개를 부쳐 오기도 했다.⁶⁾ 연암 자신도 <총석정관일출>에 대한 자부심이 컸던 듯, 훗날 『열하일기』 속에 이것을 그대로 인용 수록하여 자기 확신을 갖는 수단으로 사용했다.

다음으로는 연암 자신이 늘 갈등 속에 방황하던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데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금강산 여행 후 연암은 노원 부근에 살고 있던 李氏 집안과 송사가 있어 어려운 시간을 보낸다.⁷⁾ 이 일로 인하여

5) 위의 논문, p.15.

6) 『과정록』에서는 이 일을 아래와 같이 기록하고 있다.

선군은 금강산 유람에서 총석정 일출시 한 편을 지으셨다. 판서 홍상한이 아들을 통해서 구해보고 놀랍게 여겨, “지금 세상에도 이런 필력이 있던 말인가? 이 시는 그저 읽어서는 안 된다” 하고, 중국 붓 큰 것과 작은 것 모두 이백 개를 그 문하 사람 편에 보내어 왔는데, 부치는 뜻이 정중하였다.

先君 於金剛之遊 有叢石亭觀日出詩一篇 洪尙書象漢 從子舍見之驚曰 今世 能有此筆力乎 是不可空讀也 以唐筆大小共二百枝 送門下客致之 寄意鄭重焉. 『過庭錄』 卷一.

7) 김윤조 역주, 『과정록』, pp.38~42.

연암이 과거에 응시하지 않게 되었다는 주장도 있으나 반드시 그랬다고 볼 수는 없다. 송사의 시작이 1767년이었고, 연암은 1770년에 監試에 응하여 초장과 종장에서 모두 장원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會試에는 시권을 제출하지 않고 그 이후로 다시는 과거에 응시하지 않았다. 주로 연암협과 백담과 서생들의 집을 왕래하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려 했다. 이 무렵 나라 안의 이름난 산을 두루 유람하고 평양을 비롯한 명승지를 돌아보았다는 기록이 있다.⁸⁾ 그러나 이 시기의 기행문은 별도로 남아있지 않다.

2) 연경과 열하 여행

문학사를 장식하는 연암의 대표적인 여행은 그의 나이 44세 때인 1780년에 이루어졌다. 청나라 건륭황제의 칠십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사절단의 일원으로 참가한 연암은 청의 수도 연경뿐 아니라 별궁이 있던 열하까지 방문할 기회를 얻는다. 그는 이 여행의 경험을 『열하일기』라는 독특한 명칭의 기행문으로 엮어내면서 자신의 문학과 사상 전체를 담고자 하는 의욕을 과시한다.

『열하일기』는 그해 6월 24일, 압록강의 장관을 묘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어서 광활한 요동 땅을 대하는 감회, 중국의 문물에 대한 관심, 갖가지 기이한 이야기, 과학과 사상을 포함한 시대정신의 분석 등을 독특한 필치로 표현했다. 형식도 일기체로 일관하지 않고 열하에서 연경으로 돌아온 뒷부분은 잡록의 방식으로 바꾸었으며, 8월 20일 이후의 귀국길 여정 기록은 과감히 생략하였다. 이는 『열하일기』의 주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 연행록의 상투적인 형식에서 탈피하고자 했던 의도로 보인다.⁹⁾ 이런 자유로운 형식의 기행문은 문체의 다양성이라는 뒷받침을 받

8) 위의 책, p.43.

9) 김명호, 『열하일기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 p.21.

으며 더욱 완성도를 높이게 된다.

연암이 구사하는 산문은 정통고문체와 패관소설체를 망라한 다채로움을 지니고 있음이 특징이다. 『열하일기』는 『史記』에서 韓愈와 蘇軾의 문장으로 이어지는 정통 고문의 정수를 계승하면서도, 기존의 작법에 구애됨이 없이 자유자재로 변화를 추구하는 산문이다.¹⁰⁾ 근대사회로의 지향을 모색하는 시기에 현실을 냉엄하게 관찰하고 분석하려는 연암의 자세는 그의 문학 속에 투철한 산문정신을 이루게 만들었다. 이 정신으로 이루어진 글은 이전의 틀에 박힌 형태를 거부한 자유로운 산문 위주의 스타일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일은 연암이 이 방대한 기행문에 180여 수의 시를 삽입해 놓았다는 점이다. 산문정신에 철저한 연암이 시화집도 아닌 『열하일기』에 이토록 많은 양의 시를 사용한 것은 의당 그에 합당한 까닭이 있었을 것이다.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기행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시가 필요했다는 사실이다. 여행을 통해 중국을 이해하기 원했던 연암은 실제로 길에서 본 것들을 고대의 한시에서 확인하였고, 생생한 현실의 문제를 당대 문인의 시에 적용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삽입시를 중국인의 작품으로 사용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문학적 기능과 관련된 다른 이유는, 운문 원리를 산문 속에 구현함으로써 진술의 평면성이나 느슨함을 극복하고 서술의 다양한 변화와 일정한 박자를 부여하려 한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다.¹¹⁾ 그는 여행에서 얻은 자료들을 철저하게 분류하고 정리하여 자신의 문학적 목적에 합당한 방식의 기행문을 썼던 것이다.

열하의 여행 이후 연암은 조선의 지식인들을 깨우치고자 하는 사명감이 한층 높아져 이용후생이라는 주제에 더욱 충실한 문인이 된다. 벼슬이 없

10) 위의 논문, p.294.

11) 전재강, 『열하일기 소재 삽입시의 성격과 기능』, 『북한한문학』8, 북한한문학회, 1992, p.29.

던 그가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타파하고 백성들에게 이용후생의 삶을 권고할 방법은 오직 저술을 통한 활동밖에 없음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이다. 여러 해에 걸쳐 완성한 이 『열하일기』는 근대지향적 지식인들의 열화 같은 성원을 받았으나 반면에 중국의 통속 산문인 패사소품체의 대표적인 글로 지목되어 많은 고난을 당하였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연암의 문학과 사상은 원숙한 경지에 이르게 된다.

3) 해인사 유람

1791년, 55세가 된 연암은 경상도 安義에 현감으로 부임한다. 전라도와의 경계이며 지리산 자락에 걸쳐있는 작은 고을 안의에서 5년에 걸친 연암의 관직생활이 시작되었다. 그는 이곳에서 관리로서 선정을 베풀었고 개인적으로 안정된 삶을 누렸다. 문학적인 수확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관직에 있었던 관계로 그의 문학적 변화를 이끌어왔던 여행을 마음껏 즐길 수는 없었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여행은 합천 해인사 유람이었다. 이미 젊은 날 답사 하였던 해인사였지만 가야산에 가까운 함양 땅 안의에 와 있는 기회에 유명한 명찰을 다시 가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것이다. 『연암집』에 나오는 <海印寺唱酬詩序>는 연암이 해인사에서 경상감사를 비롯한 여러 관리들과 시를 짓고 술 마셨던 일을 기록한 글이다. 그런 일로 해인사를 찾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글의 주제가 행락에 치우쳐 민생을 소홀히 하는 관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인 만큼 실제로 유람과는 거리가 멀었던 방문이었다. 본격적인 구경은 또 다른 기회에 있었던 장편 한시 <해인사>를 쓰던 때로 볼 수 있다.

중요한 사실은, 이때의 해인사 기행문도 연암이 평소 멀리하던 시 장르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그는 만년의 기행문 <해인사>를 5언 198행 990

자에 이르는 방대한 시로 구성하였다. 여러 차례 보았던 해인사이지만 이제는 다시 찾지 못할 것 같은 마음에서 과거와는 달리 전혀 새로운 해인사를 창조하려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었다.

모를레라 저 물이랑 저 돌은
 서로 무슨 질투가 있다는 건지
 물이 돌에 부딪치지 않는다면
 돌도 원망하며 거역하지 않을 텐데
 부디 돌이 조금만 양보한다면
 물도 편평하게 퍼지며 흘러갈 것을
 어찌자고 힘자랑 밀치고 다투어
 밤낮으로 야단법석 일삼는 건고
 不知水於石
 有何相嫉妒
 使水不相激
 石應無怨忤
 願言石小遜
 水亦流平鋪
 奈何力排爭
 日夜事喧嘩¹²⁾

위의 시구는 해인사 입구의 경관을 묘사하면서 물과 돌을 들어 당파싸움을 비판한 대목이다. 추상적인 주제가 생경하게 노출되지 않고 구체적인 사물을 통하여 형상화되어 있음이 특징이다.¹³⁾ 뿐만 아니라 이 시에는 불교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보이고 신분제도의 문제점 같은 사회적 불합리에

12) 『燕巖集』, 卷之四, 映帶亭雜咏 <海印寺>.

13) 송계소, 「연암시 <해인사>에 대하여」, 『한국한문학회연구』11, 한국한문학회, 1988, p.89.

대한 지적이 있다. 이후에 연암은 충청도 먼천과 강원도 양양에서 각각 짧은 시간 동안 관직을 맡았으나 기행문을 다시 쓰지 않았고 곧 은거생활로 들어가 별세하게 된다. 해인사 유람과 이에 대한 기행문은 연암의 일생을 두고 추구해 온 합리적 현실성을 반영한 결실이라 할 수 있다. 연암은 해인사 유람에 나서서 차분하게 경치를 완상하는 사실적 묘사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속에 자신이 주창한 실학사상의 핵심 내용을 차곡차곡 쌓아 놓았던 것이다.

3. 연암의 산문정신과 기행문의 형태

1) 산문정신의 기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산문의 본질적인 성격은 비문학적 기록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그것은 글이 갖는 형식의 제약을 벗어나 대상을 자유롭게 표현하려는 태도에서 비롯된 산물이다. 산문정신은 이런 입장을 바탕으로 인간의 의식 속에 발현되는 여러 생각들을 아무런 구속 없이 표현하고자 하는 문학적 사고를 가리킨다. 『연암집』은 연암 박지원의 문학 이론과 창작품들이 그의 독특한 산문정신 아래 엮어진 책이며, 『열하일기』는 사실 기록을 토대로 하고 부수적으로 미적 효과를 곁들인 문학 지향적 산문집이다. 그러나 연암은 이 책들에서 대상의 참모습을 충실히 그리기 위해 어떠한 기준 양식도 경우에 따라 자유로이 활용하였다.¹⁴⁾ 그 결과 시를 포함한 운문들의 사용도 활발히 하고 있는데 이것은 넓은 의미의 산문정신이라 할 수 있다. 산문정신은 운문을 배격하고 모든 글을 산문으로만 쓰자는 일반적인 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표현하고자 하는 현실적 대상이 복잡하고

14) 김일렬, 『고전소설신론』, 새문사, 2003, p.260.

다양하므로 그것을 논리적으로 형식의 제약 없이 쓸 수 있다면 이 정신은 이미 실현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 의미에서 『연암집』에 수록된 42편의 창작시들과, 『열하일기』에 나오는 수많은 인용시들은 연암의 산문정신을 역설적으로 강화시켜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¹⁵⁾ 여행에서 얻은 감격과 깨달음, 역사의 확증을 드러내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 시라고 판단했을 때는 그것을 주저 없이 사용하는 것이 자유로운 표현법이다. 특히 기행문에서 작가의 경이감과 영탄을 표현할 가장 적합한 그릇을 찾아 그것을 제약 없이 사용하는 방식은 근본적으로 산문정신에 부합되는 태도라 할 수 있다.

산문정신은 단순히 운문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기준으로 판별할 것이 아니라, 작자의 사상을 얼마나 사실적으로 제약 받지 않고 기록할 수 있었는가 하는 관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연암이 제창한 글쓰기 방법에서 최대의 관심사는 문학의 양식에 대한 우열이라는지, 규범의 준수나 이탈의 여부보다도 대상이 되는 사물을 진실하게 효과적으로 표현할 길을 모색하는 것이었고 그 방식의 대답을 산문에서 얻었던 것이다. 그의 문학 이론 중에 글쓰기 방법을 兵事에 비유한 대목이 있다.

글을 잘 짓는 자는 아마 병법을 잘 알 것이다. 비유컨대 글자는 군사요, 글 뜻은 장수요, 제목이란 적국이요, 고사의 인용이란 전장의 진지를 구축하는 것이요, 글자를 묶어서 구를 만들고 구를 모아서 장을 이루는 것은 대오를 이루어 행군하는 것과 같다. 운에 맞추어 읊고 멋진 표현으로써 빛을 내는 것은 징과 북을 울리고 깃발을 휘날리는 것과 같으며, 앞뒤의 조응이란 봉화를 올리는 것이요, 비유란 기습 공격하는 기병이요, 억양반복이란 맞붙어 싸워 서로 죽이는 것이요, 파제한 다음 마무리하는 것은 먼저 성벽에 올라가 적을 사로잡는 것이요, 함축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란 반백의 늙은이를 사로잡

15) 현존하는 연암의 시는 모두 45편으로서, 연암집의 42편과 김윤조 교수가 발굴한 시 3편, 그리고 『과정록』 권4에 수록된 13편의 散句가 전부이다.

지 않는 것이요, 여운을 남기는 것이란 군대를 정돈하여 개선하는 것이다.

善爲文者 其知兵乎 字譬則士也 意譬則將也 題目者 敵國也 掌故者 戰場
墟壘也 東字爲句 團句成章 猶隊伍行陣也 韻以聲之 詞以耀之 猶金鼓旌旗
也 照應者 烽燧也 譬喻者 遊騎也 抑揚反復者 鏖戰撕殺也 破題而結束者
先登而擒敵也 貴含蓄者 不禽二毛也 有餘音者 振旅而凱旋也¹⁶⁾

창작을 전투에 비꼈던 연암은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으로서 산문정신으로 이루어진 소설이라는 갈래를 취하였다. 소설은 표면적으로는 공연한 잡담을 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어 적국을 안심시키고는 그 허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활의 구체적인 모습을 그리는데서 진실을 찾기 때문에, 생활의 실상을 무시하고 이루어진 관념의 적국이 스스로 무너지지 않을 수 없게 하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¹⁷⁾ 그러나 연암은 총석정이나 해인사에서 대상의 허점을 공격할 의향을 갖고 있지 않다. 싸움을 거는 대신 행진을 위한 북이나 깃발을 울리고 싶어 했다. 곧韻으로 소리를 내고 수식으로 빛을 내는 金鼓 旌旗가 필요한 기회라 생각했던 것이다.

산문보다 더 효과적인 글이 될 수 있는 기행문은 때때로 시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연암은 그것을 실제로 사용하였다. 독자를 대상에 더 가까이 이끌 수 있는 방식이 있다면 규범을 벗어나 자유롭게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연암이 지닌 산문정신의 기준이었다.

2) 연암 기행문의 변형 양상

연암은 여행하기를 좋아했고, 특히 이름난 산들을 유람하기를 즐겼다.

16) 『燕巖集』, 卷之一 煙湘閣選本 <騷壇赤幟引>.

17) 조동일, 『한국문학사상사론』, 지식산업사, 1978, p.278.

이미 서술한 것처럼 그는 자신을 억누르고 있던 우울증, 과거 응시에 대한 갈등에서 벗어나 금강산을 여행하였고 거기서 얻은 감각을 기억 속에 깊이 간직하였다. 그리고 아직 가보지 못한 산으로 북쪽에 장백산, 남쪽에 지리산, 서쪽에 구월산이 있다고 하면서 두루 유람하고 싶다는 뜻을 드러내기도 했다.¹⁸⁾ 동쪽의 금강산에서 받았던 감동이 사방의 명산들을 향한 여행 의욕으로 분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연암은 그토록 뜻깊은 금강산 여행 전모를 기행문으로 남겨놓지 않았다. 훗날 그의 산문 <楓嶽堂集序>와 <觀齋記>, 또 연암 골짜기에서 지낼 때 쓴 <髮僧菴記> 등에서 금강산 추억을 떠올리기도 하고, 소설 <金神仙傳>에서는 직접 금강산에 들어가 단풍을 즐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만 이 글들을 기행문이라 볼 수는 없다. 오직 여행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행문으로 취급할 수 있는 글은 금강산 여행길에 충석정에서 해돋이를 구경하고 쓴 장시 <충석정관일출>뿐이다.

일반적으로 기행문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 한문으로 된 기행문은 한문 산문의 전통적 분류 중 사물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이나 관찰 내용을 기술하는 글인 ‘記’에 속하지만, 실제 형식은 시와 산문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¹⁹⁾ 수필이라는 갈래에 속하는 산문이면서도 독특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 운문이라는 양식과 결합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연암은 기행문이 지닌 이런 특징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였다. 산문정신을 견지하면서 기행문의 사실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산문-운문-산문’의 결합 형식을 취하거나, 아예 산문적인 시 형식을 사용하기도 했다.

그는 전통 한시의 규율이 지닌 폐쇄성에 강한 거부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 결과 연암이 남긴 시는 소수의 짙막한 서경시 위주로 되어 있고 본격적

18) 『燕巖集』, 卷之七 別集 鍾北小選 <楓嶽堂集序>.

19) 신은경, 『왕오천축국전의 기행문학적 특성 연구』, 『한국언어문학』66, 한국언어문학회, 2008. p.59.

장편 고시는 예닐곱 편에 불과할 정도로 양이 많지 않다. 그러나 이런 거부감과 회소성을 극복하고 기행시가 창작된 것은 작가의 정신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연암이 총석정에서 본 태양은 논리적으로 서술할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기대하는 강렬한 의식의 상징성을 담고 있었던 것이다. 이 태양은 현실로서가 아닌 의식과 기대 속에서의 태양일 따름이며,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강한 욕망이 연암으로 하여금 ‘觀日出’을 꿈꾸게 하였고 또 시로 옮기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²⁰⁾ 연암은 욕망의 꿈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시가 합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기행문학의 대작인 『열하일기』의 표현 형식에 관하여는 이미 수많은 연구가 나와 있어 이 글에서는 그 성과들을 일일이 다루지 않으려 한다. 다만 이 방대한 기행문은 중국의 문물을 조선인들에게 알려 그것을 실천하도록 바라는 목적 아래 기록되었고, 그 방법으로 인식 대상을 객관적 위치에 놓고서 개방적인 사유를 통해 사물을 새로이 인식하고자 했던 점의 중요성은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²¹⁾ 이를 위해 연암은 산문 양식을 기본으로 삼으면서도 객관적 인식에 따른 전달의 효과를 위해 표현 형식의 제약을 풀어야 했다. 연암은 여행 행정에 따라 견문을 순차적으로 기록하는 수법을 취하지 않고 묘사 대상의 성격에 따라 그에 알맞은 문학 양식을 이용하고자 정론적 문체, 수필 형식, 소설 형식, 시화 형식 등을 다양하게 썼다.²²⁾ 15년 전 금강산 여행길에 썼던 시적 감상과 표현을 필요에 따라 열하의 기행에 다시 활용하기도 하였다.

예컨대, 여행 기록을 시작한 날이 <渡江錄> 6월 24일이다. 아침부터 보슬비가 뿌렸고 오후에 압록강을 건너 중국 땅에 처음으로 발을 디딘 날이었다. 일기는 이 내용을 매우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일행들의 생생

20) 박노준, 앞의 책, p.16.

21) 박기석 외, 『열하일기의 재발견』, 월인, 2006, p.19.

22) 김하명, 「박지원 작품에 대하여」, 『열하일기』 리상호 역, 보리, 2004, p.529.

한 대화까지 놓치지 않고 있다. 이후에 연암은 이날의 일기를 <渡鴨綠江 回望龍灣城>라는 한시에 담았다.²³⁾ 그 내용은 압록강을 막 건너서 고국 땅을 돌아보니 고국의 산천은 만 겹 구름 속으로 사라지고 새와 물고기들도 물가에서 이별하며 이제부터 집의 편지도 끊어질 것이라고 하여 타국 땅을 밟는 나그네의 심정을 표현했다. 산문 일기와는 다른 함축적 묘미가 풍겨나는 것을 느끼게 된다.

또 하나의 사례로서 연암의 일행이 드넓은 요동 땅에 들어섰을 때의 일이다. 눈에 헛것이 보일만큼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에 서게 되자 연암은 통곡하기에 좋은 장소라고 외치며 금강산 비로봉에 올랐던 과거를 연상한다. 그리고 이제 가야할 요동별 천리 길의 여정을 떠올린다.

비로봉 꼭대기에서 동해바다를 굽어보는 곳에 한바탕 통곡할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요, 장연의 금모래톱에 가서 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요, 오늘 요동벌에 다다라 이로부터 산해관까지 1천 2백 리 어간은 사면에 한 점 산도 볼 수 없고 하늘 가와 땅 끝은 풀로 붙인 듯, 한 줄로 기운 듯 비바람 천만 년이 이 속에서 창망할 뿐이니, 또 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야.

登毗盧絕頂 望見東海 可作一場 行長淵金沙 可作一場 今臨遼野 自此至山海關一千二百里 四面都無一點山 乾端坤倪 如黏膠線縫 古雨今雲只是蒼蒼 可作一場²⁴⁾

-
- 23) 孤城如掌雨紛紛
 蘆荻茫茫塞日曛
 征馬嘶連雙吹角
 鄉山渣入萬重雲
 龍灣軍吏沙頭返
 鴨綠禽魚水際分
 家國音書從此斷
 不堪回首入無垠

『燕巖集』卷之四 映帶亭雜咏 <渡鴨綠江 回望龍灣城>.

- 24) 朴趾源, 『熱河日記』 <渡江錄> 初八日甲申.

이런 대화가 있는 후 연암 일행은 실제로 그 넓은 요동 별판의 길을 걸어간다. 몹시 덥고 바람이 부는 험로였지만 국가의 사신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시간을 재촉해야 할 형편이었다. 그때의 멀고 답답하고, 조금해지기까지 했던 심정이 <遼野曉行>이라는 시에 압축되어 있다.

요동 별판 어느 제나 끝이 날는지
 열흘 내내 산이라곤 보지 못했네
 새벽 별은 말 머리 위로 솟아오르고
 아침 해가 논밭에서 솟아나누나
 遼野何時盡
 一句不見山
 曉星飛馬首
 朝日出田間²⁵⁾

통곡할 만한 넓은 땅 요동별은 아무리 걸어도 끝이 없어 거의 열흘 동안 산이라고는 보지를 못했다고 한다. 대자연의 웅장함에 압도되어 있으면서도 공적인 일을 수행하느라 쉴 틈도 없이 일행은 밤길을 걸어가고 있다. 새벽별이 솟고 곧이어 둥근 해가 지평선에서 떠오른다. 지금까지 보아온 것처럼 산에서 솟는 게 아니라 논밭에서 뜨는 지평선상의 일출이다. 자연에 대한 경이감과 인간의 열정이 생생한 묘사 속에 조화를 이루고 있다. 긴 여정을 이렇게 응결시켜 표현한 것은 『열하일기』의 산문정신을 압축 변용하여 보려는 연암의 시도가 작용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백성들의 삶에 도움을 주고 실행에 옮겨야 하는 목적을 가진 글은 철저한 태도로 세밀하게 묘사하고 논리적으로 해석하는 연암이었다. 그러나 여행을 통하여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는 데는 운문을 사용하는 것이 독자의

이 글에서 인용한 『열하일기』 내용의 번역은 리상호 역본(보리, 2004)을 사용하였음.
 25) 『燕巖集』 卷之四, 映帶亭雜詠 <遼野曉行>.

마음을 얻기에 용이하다는 실용적 판단을 내린 또 다른 면모가 보인다. 그는 만년의 해인사 유람 결과를 다시 운문으로 써내면서 청년 시절을 회상 하듯 금강산 기행문 형식으로 복귀한다.

청년 때의 연암은 해를 바라보며 열망의 꿈을 꾸었지만, 노년에 찾아든 해인사에서는 ‘그윽한 일(幽事)’²⁶⁾들을 보았다. ‘幽事’는 구체적으로 맑은 못, 나무 그림자, 산 빛이 어우러진 가운데 새와 짐승들이 조화를 이룬 경치를 가리키고 있다. 이 그윽한 일들이 모여 있는 세계가 의미하는 것은 먼저, 인간 세상이 아닌 자연의 세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뜻하고 다음으로, 인간들의 일상 규범과는 다른 기준에 의하여 살아가는 중들의 세계가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²⁷⁾ 현실과 거리가 있는 세계에 들어선 연암은 이 유람을 꿈속의 장면인 양 그려보며 그윽한 분위기를 시로 표현한다. 그리고 일생 긍정적이지 않았던 불교와 승려에 대해서도 인간적 동정심을 가득 채워 놓는다.

3) 운문의 사용과 산문정신 변이의 문제

지금까지 한국문학사에서 산문정신을 구현한 상징적 인물인 연암이 기행문에서 유독 운문을 즐겨 사용한 현상을 분석해 보았다. 여기서는 이러

26) 五言古詩로 된 <해인사>의 처음 부분은 아래와 같다.

합천이라 해인사 절이 있으니
 웅장 화려 팔도에 이름이 났네
 가마 타고 골짜기에 막 들어서니
 그윽한 경치(일) 차츰차츰 모여드누나
 陝川海印寺
 壯麗稱八路
 肩輿初入洞
 幽事漸相聚

27) 송재소, 앞의 논문, p.64.

한 운문의 사용이 산문정신을 어떻게 변이시켰다고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산문은 논리적인 목적이나 설명적 묘사를 수행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지만, 글이 길어짐에 따르는 이완의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긴장이 풀리면 독자는 따분해지고 작자 또한 평면적 서술에 그치게 될 위험성이 크다. 연암이 금강산 여행 중에 보았던 총석정에서의 해돋이는 긴장감을 주는 입체적 표현을 사용해야 독자를 대상에 직면하게 할 수 있었다. 그가 평소애 멀리하던 운문을 사용한 결정적 이유인 것이다.

연암은 서정적, 서정적 소품을 제외하고는 시를 거의 남기지 않았다. 유수한 시인이자 그의 제자인 朴齊家가 스승의 시를 가리켜 마치 우담화처럼 보기 어렵고 고귀하다고 하면서 연암의 작시를 간곡히 기다릴 정도였다.²⁸⁾ 시에 관한 그의 과장 태도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런 연암이 『열하일기』에서는 기행문의 입체감을 위하여 한국과 중국의 문인들이 쓴 시들을 이백 수 가까이 삼입시켰다. 이는 시의 함축성이 갖는 긴장과 수필의 개념성이 갖는 이완의 계기적 변화를 동시에 수반하는 것이어서 『열하일기』가 지닌 수필로서의 전체적 성격 안에 운문의 성격을 추가하여 그 갈래의 성격을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는다.²⁹⁾ 삼입시가 있어 긴 문장을 이어주고 단락의 전환을 명쾌하게 이루면서 전환과 제시의 기능을 수행

28) 예부터 문장에는 글씨가 한이더니
연암시 본 사람 그 몇이더뇨
우담화 한번 피듯 용화 보고 웃으니
이때가 선생의 시구 찾을 때
從古文章恨橘鱒
幾人看見燕巖詩
曇花一現龍圖笑
正是先生覓句時

『貞菴集 附北學議』〈賀燕巖作律詩〉.

29) 전재강, 앞의 논문, p.25.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전통적인 기행문이 지닌 산문적 성격을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이 격동적인 글쓰기를 마친 연암은 마지막 기행문으로서 이전부터 낮익은 곳이었던 해인사를 찾아 유람시를 내놓는다. 초기시의 모습으로 환원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며 사실적 묘사 방식을 마음껏 과시했다. 시에 있어 동일한 대상을 묘사하더라도 연암의 경우 관점의 차이가 컸는데 그것은 모방을 거부하고 창조를 지향하는 창작의식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³⁰⁾ 이런 창조적 정신은 연암의 산문정신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것은 산문으로 기록한 데서 찾아내는 정신이 아니라 대상을 새롭게 보고 그 대상과의 사이에서 교감되는 생생한 관계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과정에서 발현되는 정신이다.

<해인사>는 대단히 산문적이다. 많은 이야기와 다채로운 생각들이 시 속에 펼쳐진다. 해인사 입구와 경내의 경치, 팔만대장경관에 대한 경탄, 대장경을 판각했다는 李居仁이란 사람에 얽힌 설화 등이 길게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거인 설화는 시로서의 성격을 벗어나는 긴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연암은 시에서 산문을 보여주기도 하고 시를 산문으로 변이시키는 능력을 과시하였다. 그의 기행문은 산문정신의 변이를 총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산문으로 글을 쓰는 일을 지탱하는 것보다도, 사실적 전달을 위한 운문의 사용이 산문정신을 유지 강화하는 데 더욱 효과적이라는 확신과 가능성이 열어주고 있는 것이다.

4. 결론

연암 박지원은 산문정신을 바탕으로 문학 활동을 했던 대표적 문인이다.

30) 송재소, 앞의 논문, p.88.

산문정신이란 글이 갖는 형식의 제약을 벗어나 대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자 하는 문학적 사고를 가리킨다. 그는 이 정신으로써 당시 心性 수양 위주의 漢詩 중심 문학을 사실적이고 자유롭게 대상을 보는 산문문학으로 바꾸어가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연암의 선구자적 행로에는 어려움이 따르게 마련이어서 자신을 괴롭히던 병, 과거 응시 여부의 갈등, 문체에 대한 폄박 등을 극복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는 이런 위기를 당할 때 일상을 떠나 여행을 했고 그 결과를 기행문으로 남겨놓았다. 연암은 이 글쓰기 작업을 통하여 자신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지혜를 발휘했던 것이다.

그의 대표적인 기행문은 청년기에 금강산을 유람하고 쓴 <충석정관일출>, 장년기에 청나라의 연경과 열하를 다녀온 기록 『열하일기』, 또한 만년에 함천 해인사를 유람한 내용의 <해인사>를 들 수 있다. 그런데 <충석정관일출>과 <해인사>는 장편 한시이며, 『열하일기』에도 약 200편 가까운 한시들이 인용되었다. 산문정신으로 무장한 연암이 인생의 변화기에 운문체의 기행문을 즐겨 썼던 이유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산문정신은 단순히 운문의 사용 여부로 판별할 것이 아니라, 글쓴이가 자신의 사상을 얼마나 사실적으로 제약 없이 기록하였는가 하는 관점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연암의 시로 된 기행문들은 작가의 산문정신을 역설적으로 강화시켜 준다. 연암의 기행문은 이런 점에서 운문과 산문으로 갈렸던 기존의 갈래 의미에 변이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문학에 있어 갈래 중심이 운문에서 산문으로 이동하면서 산문정신도 운문을 포괄하는 자유로운 표현 의식을 가리키는 의미로 변이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참고문헌】

- 朴趾源, 『燕巖集』, 신호열·김명호 역, 돌베개, 2007.
- , 『熱河日記』, 리상호 역, 보리, 2004.
- 朴宗采, 『過庭錄』, 김윤조 역주, 대학사, 1997.
- 강혜선, 「법고창신과 박지원의 연행시」, 『한국한시연구』3, 한국한시학회, 1985.
- 김명호, 「열하일기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
- , 「연암 박지원의 삶과 문학」, 『지금 조선의 시를 쓰라』, 돌베개, 2007.
- 김일렬, 『고전소설신론』, 새문사, 2003.
- 박기석 외, 「열하일기의 재발견」, 월인, 2006.
- 박노준, 「<총석정관일출>과 <해>의 지향세계」, 『조선후기 시가의 현실인식』,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998.
- 송재소, 「연암의 시에 대하여」, 『연암연구』, 계명대학교출판부, 1984.
- , 「연암시 <해인사>에 대하여」, 『한국한문학연구』11, 한국한문학회, 1988.
- 신은경, 「왕오천축국전의 기행문학적 특성 연구」, 『한국언어문학』66, 한국언어문학회, 2008.
- 이종문, 「연암 박지원의 한시에 관한 한 고찰」, 『한국한문학연구』39, 한국한문학회, 2007.
- 전재강, 「열하일기 소재 삽입시의 성격과 기능」, 『복현한문학』8, 복현한문학회, 1992.
- 조동일, 『한국문학사상사시론』, 지식산업사, 1978.

Abstract

A Study on Abnormality of Prose-spirit in Yeonam's Travels

Kim Su-Jung

Yeonam Park Ji-won is a representative literary man who did literary activities standing on the spirit of prose of the latter term of Joseon. The spirit of prose is literary thinking that expresses objects freely escaping limitation of forms writings have. He changed nature fostering-centered literature of Chinese poetry into realistic literature of prose as this spirit.

Because of difficulties in Yeonam's pioneer path, it wasn't easy for him to overcome diseases, complications of applying for the state examination, persecution of the style of writings. He used to travel in such a crisis and leave an account of his trip. He solved problems of him and society by such a work of writing.

His representative travel sketches are <Chongseokjeonggwani-chul> after travel of Mt. Geumgang in his youth, 『Yeolhailgi』 after travel Yeongyeong and Yeolha in The Qing Dynasty in the prime of life, <Haeinsa> after travel of Haeinsa in Mt. Gaya in his later years. By the way <Chongseokjeonggwani-chul> and <Haeinsa> are long works of Chinese poetry, and about two hundreds of Chinese Poetry are quoted in 『Yeolhailgi』. The reason that Yeonam who had the spirit of prose wrote poetry in the important period of change has important meaning in the history of literature.

The spirit of prose should not be distinguished as not using poetry but as writing the writer's ideas realistically without condition. These poetry strengthen Yeonam's spirit of prose paradoxically. In this sense, his travel sketches caused change of meaning of existing genre divided into poetry and prose. The spirit of prose also presents an appearance of changing into free consciousness of expression including poetry while the center of genre moves

from poetry to prose in literature.

Key words : prose-spirit, travels, Chongseokjeonggwaniilchul, Yeolhailgi,
Haeinsa, realistic literature, consciousness of expression

김수중

조선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주소 : (501-759)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375

전화번호 : (062)230-6516

전자우편 : sjdkim@chosun.ac.kr

이 논문은 2009년 4월 30일 투고되어
2009년 6월 14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09년 6월 16일 게재 확정됨.